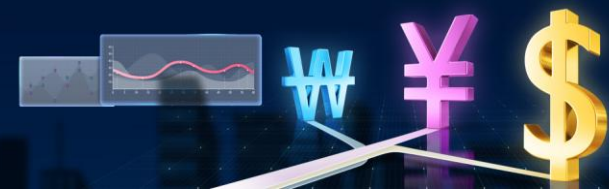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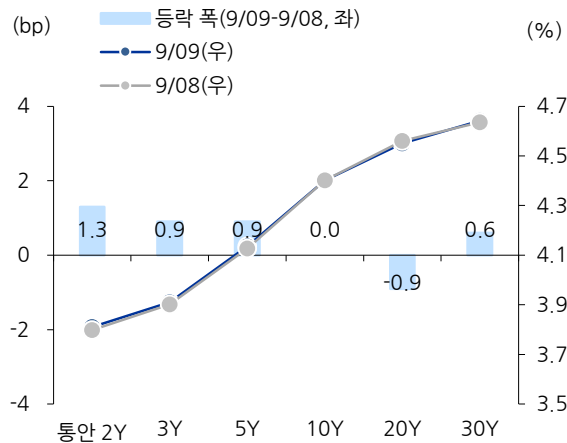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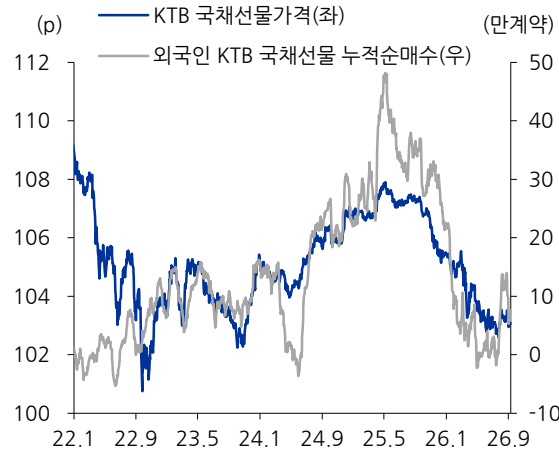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9/9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910%	0.9	-2.0	95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401%	0.0	-1.7	101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9.1	50.0	48.8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04	-7.0	9.0	-240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12	-1.0	37.0	-780.0
	미국채 2년물	4.432%	3.7	3.5	96.0
	미국채 10년물	4.843%	5.2	4.4	67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1.1	39.6	40.1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455%	7.9	6.9	60.0
	호주국채 10년물	5.211%	2.2	0.8	45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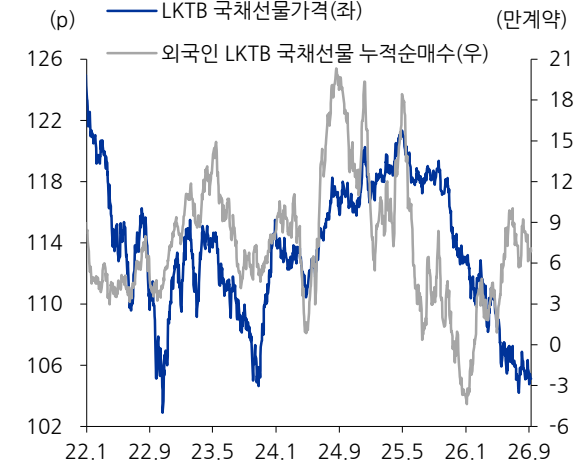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보합 마감.
- 간밤 미국의 이란 하르그섬 폭격 등 전쟁 우려 불거진 영향으로 국내 금리 소폭 상승 출발. 장중 국제유가 상승 지속도 영향. WTI는 94불 돌파.
-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도 영향. 다만 그외 금리를 움직일 만한 국내 재료 부재했고, 현지시각 11일 예정된 미국 CPI를 앞둔 경계심에 금리 변동성 제한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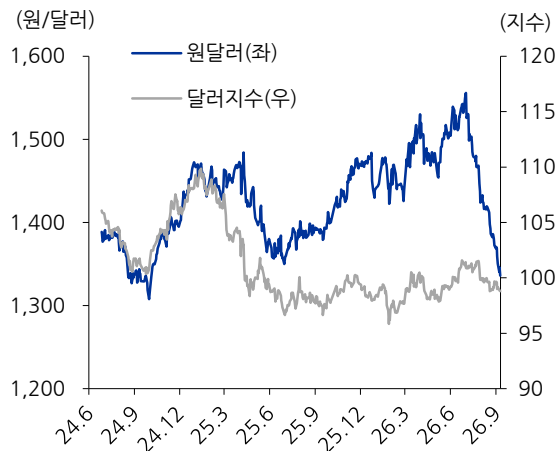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미 재무부 바이백 규모 실망.
- 오전 미국 재무부 바이백 예비공고 후 장기물 위주 금리 상승세 확대. 재무부, 익일 실시하는 10~20년 구간 바이백 한도를 2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높인다고 발표했음. 그럼에도 일부 시장에서 100억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탓에 실망감으로 장기물 금리 상승 견인.
- 미국 IG등급 회사채 시장에서 34개 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등 기타 공급 부담도 여전했음. 국채 10년 입찰 다소 부진했던 가운데 금리 상승폭 일부 반납.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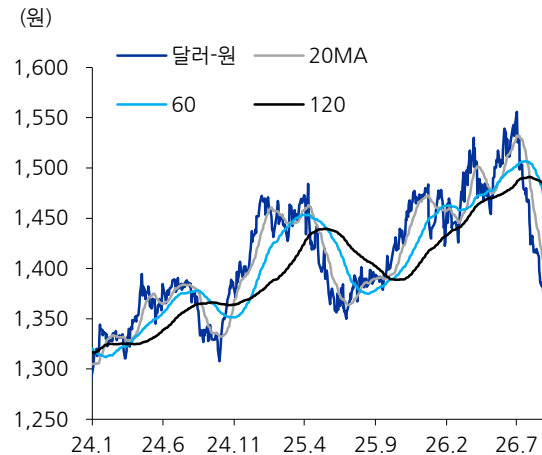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9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36.10	-0.7%	-2.4%	-7.2%
	달러지수	98.79	-0.1%	-0.8%	0.5%
	달러/유로	1.16	0.1%	0.4%	-1.0%
	위안/달러(역외)	6.71	0.0%	-0.2%	-4.0%
	엔/달러	153.56	-0.3%	-3.2%	-2.0%
	달러/파운드	1.35	0.1%	0.5%	0.6%
	헤알/달러	5.11	0.5%	0.4%	-7.4%
상품	WTI 근월물(\$)	96.05	3.2%	6.5%	67.3%
	금 현물(\$)	4,400.10	1.0%	0.3%	1.9%
	비트코인(\$)	78,370	-0.3%	1.1%	-10.8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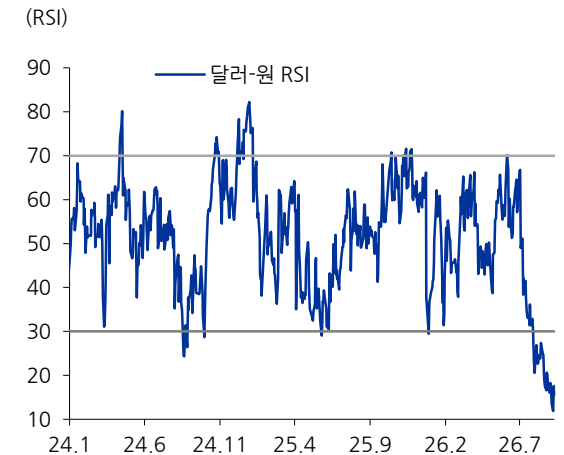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엔화 강세 전망 확산되며 -9.50원 내린 1,336.10원 마감(야간 1,340.60원).
- 아시아장 엔화 상승에 원화는 동반 강세 보임. 베센트 美 재무장관은 9/8일 일본 정책 당국자들의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“원한다면 반대로 베풀어도 된다”라고 발언해 엔화 강세를 지지.
- 지난주 BOJ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더해 GPIF 국내채권 비중 확대 가능성 거론되며 엔화 강세 기대 높아짐. 시장은 BOJ 9월 인상 가능성을 거의 100% 반영하고 있음.
- 역대급 경상흑자에 따른 수출기업의 환전 수요가 7월부터 본격적인 달러-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. 엔화 추가 강세 기대는 원화에 우호적임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엔화 강세 기대 이어지며 하락, 美 재무부 바이백 규모 예상 하회에 하락폭 축소(DXY -0.1%).
- 달러-엔은 베센트 美 재무장관의 엔화 강세 지지 발언에 추가 하락해 153.5엔대 마감.
- 美 재무부는 9/10일 진행하는 10~20년물 국채에 대한 바이백 한도를 60억달러로 상향했으나, 80~100억 달러 매입 가능성도 거론됐던 만큼 시장은 美 국채 매도로 반응. 이에 금리 상승하고 달러는 낙폭 축소.
- 한편 미-이란, 사우디-후티 군사충돌 이어졌고, 이란과의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브렌트유는 100\$/bbl 돌파(WTI +3.2%).
- 금일 美 8월 PPI 발표.